

2018년 11월 16일

제85회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 이사회 회의록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

○ **司會 경영국장 직무대행 이성표**

안녕하십니까? 경영국장 직무대행 이성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수미 이사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참석하신 이사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병량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인출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대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보연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인주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실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승문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창훈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중욱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은수미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사님 중 임종율 이사님, 박은숙 이사님, 현기영 이사님, 서해성 이사님, 임승민 이사님, 이용규감사님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재단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균 축제추진단장입니다.

이성표 경영국장 직무대행 겸 총무부장입니다.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 겸 공연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진흥국장 직무대행 겸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고성영 감사실장입니다.

박현호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부장입니다.

김민준 안전시설부장입니다.

김상균 무대운영부장입니다.

박천남 전시기획부장입니다.

박지훈 문화기획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사회 회의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원보고

개 회

국민의례

인사말씀

안건심의로

- 연봉제규정 중 개정규정(안)
 -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산 명시이월(안)
 - 선임직 이사 선임(안)
- 폐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이사장 은수미**

경영국장님 성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원보고

○ **司會 경영국장 직무대행 이성표**

17명의 이사님 중 이사님 10명이 참석하여 성남문화재단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개최를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계획선언

○ **이사장 은수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성남문화재단 이사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이사장 三 打)

3. 국민의례

○ **司會 경영국장 직무대행 이성표**

이어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잠시 후 - 바로)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司會 경영국장 직무대행 이성표**

은수미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4. 인사말씀

○ **이사장 은수미**

안녕하십니까? 이사님들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주 뵙고 의견도 듣고 해야 하는데,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성남이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도 높고 한데, 성남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모란시장 이렇게 떠오르는게 있는데, 하나의 브랜드로 되고 성남하면 어떤 문화로 떠오르는 이렇게 좀 부족하다고 해요. 문화재단에 대한 관심이나 문화재단이 공연 같은 것을 하면 짹 짹 차던데, 이런 관심도 있고, 잠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하니 이제는 좀 문화재단이 성남의 문화정책을 총괄한다 생각하시고, 기획을 해주십사 하고 일찌감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사님들께서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하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 보다는 시민의견을 들어서 문화재단이 주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뭐든 좋으니, 제가 전시행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저 있는 동안 성남은 성남시민에게 좋고, 아이들에게 좋은 문화적인 브랜드가 떠올라주면 좋겠다는 소심한 소원을 갖고 있고요, 소원은 소심하지만, 지원은 가차없이 하겠노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박명숙대표님 비롯해서 이사님들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司會 경영국장 직무대행 이성표**

이어서 안건심의를 있겠습니다.

5. 안건심의

○ **이사장 은수미**

안건심의에 앞서 이사회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사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理事 있음]

○ 이사장 은수미

없으시면 심의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안번호 제385호 연봉제규정 중 개정규정(안)
 - 의안번호 제386호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의안번호 제387호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산 명시이월(안)
 - 의안번호 제388호 선임직 이사 선임(안)
-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사장 三 打)

○ 이사장 은수미

경영국장은 의안번호 제385호 연봉제규정 중 개정규정안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司會 경영국장 직무대행 이성표

의안번호 제385호 연봉제규정 중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사 김대진

이사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오늘 부의안건은 해당 직원이 와서 이미 상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 이사장 은수미

그럼 의안 385, 386호 이런 설명을 들으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사 김대진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죠.

○ 이사장 은수미

경영국장님 문화재단 김대진이사님 의견을 받아 간략하게 얘기해주십시오.

○ 司會 경영국장 직무대행 이성표

규정개선안에 임원,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업무장려수당 항목을 삭제 하고자 하며, 성남시 개선계획 권고(안)으로 2~5급 중 실·부장 보직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 3쪽부터 6쪽까지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사장 은수미

이미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385호 연봉제규정 중 개정규정안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理事 있음]

(이사장 三 打)

○ 이사장 은수미

네, 386호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司會 경영국장 직무대행 이성표

의안번호 제386호 2019년도 성남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사전에 충분한 보고는 드렸지만, 저희가 별도로 회의서류 외에 PT자료로 해서 3장의 자료를 같이 나눠드렸습니다. 전체 예산의 큰 내용만 설명드리면,
전체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5.6% 증가된 301억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경영국 행정운영경비는 줄였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 중심이 되는 문화진흥국 사업 예산들이 뒤에 두 번째장 표에 보면 저희 원 도표로 나타났는데요, 전년대비 해서 문화진흥국 사업들을 증액을 했고요, 경영이나 행정운영경비를 줄이고, 문화진흥국 사업을 늘려서 공약사업 예산을 더해서 전체 예산은 금액은 좀 상향됐습니다만, 실제 전체 예산들은 그 공약사업이나 문화진흥국의 특별한 사업을 제외하면 전체는 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총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올린 성남문화재단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의결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이사 임인출

사랑방문화클럽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 司會 경영국장 직무대행 이성표

문화국장 직무대행 이상훈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진흥국장 직무대행 이상훈

사랑방문화클럽 예산 중에서 사랑방클럽축제 예산이 줄었습니다. 내년 사업의 방향을 진흥국 내에서 사업방향을 잡으면서 생활문화활성화에 대한 기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았고, 사랑방문화클럽의 기존의 200여개 클럽 위주로 제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서 그쪽의 사업들은 그쪽의 사업대로 가지만 생활밀착형사업도 확산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동아리들을 만들고, 새로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방향을 넓히는 방향으로 잡으면서 기존의 축제예산을 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사 임인출**

다른쪽의 예산이 확충된건가요?

○ **문화진흥국장 직무대행 이상훈**

네. 5분거리사업이나 생활밀착형으로 시민들이 생활공간 속에서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공간이나 이런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준비중에 있고, 내년 사업에 그 내용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사 임인출**

제 생각에는 축제예산도, 저도 같이 참여해 봤는데, 참여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즐거워 하고, 얼굴이 밝은데, 참 좋은 행사고, 이런 것들이 발전되서 지역의 시민문화예술 동아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사랑방문화클럽축제가 모범적으로 행사를 해왔는데, 축제 예산이 얼마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도 더 확대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줄이면 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진흥국장 직무대행 이상훈**

말씀하신 기본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예산은 전년에 예산이 1억2천에서 3천만원 정도 줄여서 9천만원으로 진행하는데, 저희가 보기에 축제사업 진행하는 내용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고판단을 해서 내린 사항입니다.

○ **이사장 은수미**

그건 제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성남시 전체 축제의 계획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성남시에서 마을이 50개 동인데, 50개 동에서 1년에 평균 3회 이상의 축제가 열리는데 그래서 축제 비용만 대략 35억을 저희가 n분의 1 지급을 해요. 엄청난 겁니다. 여기에 사실은 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기획하는 경우는 소수예요. 사랑방클럽과 파크콘서트, 피크닉콘서트 이런 몇가지여서 오히려 저는 그런 마을축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마을축제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그렇게 전체로 보면서 문화재단이 기획을 해서 비슷한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컨셉을 통일한다거나 기획을 한다거나 이런것부터 시작해서 문화재단이 그 사랑방클럽 예산은 줄었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은 좀 더 키우고, 특별히 축제를 기획하는 이런 방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생활밀착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밀착형이라는 것은 이 마을축제 오시는 분이 딱 한정되어 계세요. 4년을 돌아다녔는데, 똑같아요. 오시는분들이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97만정도인데 나머지 90만명 중에 일부라도 더 오시면 좋겠는데, 이게 안되요. 그래서 또 새롭게 그런걸 마을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생활밀착형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정들이 일어난게 아닌가 합니다. 다만 어쨌든 저는 그것이 문화재단 중심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n분의 1 방식으로 뿌려져서 이렇게 돈을 많이 뿌리는데 대표적 축제가 없단 말이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즐겁게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는 컨셉을 좀 잡아가면서 n분의 1로 뿌려서 할건 하시지만 우리가 기획할 것은 좀 기획을 해보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사 임인출

말씀하신대로 콘트롤타워로 시문화정책을 관장하면서, 깊이 있게 보면서 문화재단 다운 그런 기획행사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 이사장 은수미

예, 아마 박명숙대표님도 그런 무용축제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큰데하고도 연계할 수있을 것 같아서 재밌는 기획들이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이사님들께서 여기에서 세번째를 보시면 가극 금강 1894. 이걸 됐으면 좋겠다인데, 예산도 이렇게 문화재단 중심으로 배정. 남북교류 공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좀 풀어진다면, 저희가 내년 4월에 아마 북한에서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걸 시작을 하면 저희들이 이걸 문화재단이 남북 경험관련해서 기금도 이번에 별도로 통과가 되면 25억 기금도 마련하고 인도적 지원사업도 하려고 하는데, 문화적인 교류를 좀 시작해보려고 하거든요, 아마 하게되면 문화재단이 가장 처음으로 성남의 이름을 걸고 가시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될수있도록 노력도 많이 할 것이고요 이사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 이사 김영실

서두에서 우리 이사장께서 재정자립도도 경기도에서 최고로 좋다. 또 넉넉하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문화재단의 증액은 5.6%라고 했는데, 왜 줄어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사장 은수미

그건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이 어려워요. 내년이 어려운 이유가 국회, 중앙부처하고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화재단 예산만이 아니어서 전체 예산을 다 조정을 한 상황인데, 예전상황을 유지하거나 약간 올리는 정도로 묶었어요. 왜냐면 2020년에 공원 일몰제 때문에 내년까지 3,385억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취임하기 전에 적립금이, 적립을 했어야 하는데, 적립금이 50억밖에 없었어요. 저는 3,385억 적립을 해야해서 이미 인사회 때 이야기해서 부채내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채. 내년에 준공영제를 실시 해요. 그러면 저희가 버스에 대한 지원이 50억이었었는데, 준공영제를 하면 613억이에요. 이것을 물론 국비를 주겠다고는 하는데, 얼마를 줄지를 알수가 없어요. 613억 이거를 합치면, 천억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박근혜정부 때에 시행령 계정을 해가지고, 저희 예산을 조정적으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910억 깎이고, 내후년에 1,300억이 깎여요. 그러니까 지금 4천억이 필요한데, 이게 안되는데다가 사람들이 그럼 대장금 돈도 있고 그런데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화되었지가 않았어요. 대장금 1,800억 이런 예산들이 전혀 그리고 판교 개발 이익금도 2020년 이후에나 쓸 수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돈이 완전히 묶여 버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급하게 2,000~3,000천억 정도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하고, 이미 얘기는 다 해놨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저희가 내년에만. 그리고 내후년에는 한번 내년을. 그래서 지금 제가 정부에도 중앙부처에도 910억 깎는거 유보를 좀 해달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방안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을 좀 고민하면 그리고 내년에 아무래도 재산세가 조금 더 들어올수도 있고, 판교 2,3밸리 되면 거기서 세수가 좀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을 좀 보고, 내후년부터는 다시 조금 더 증액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노라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이사 김영실

그런데 보면은 문화예술쪽에 일을 하다보면 사업비에 비례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그것에 비례해서 사업이 잘되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림없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궁금한 것이 재정자립도도 좋고한데. 예 알겠습니다.

○ 이사장 은수미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시민문화회관 만들어지면 예충이나 지부들 적극적으로 공간은 확보를 했으니까 그런 점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나 예산에서 최대한 문화재단에서 요구하는 것을 많이 들어 드릴려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이사 김영실

그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 예총자리들 주셔가지고,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사장 은수미

특별히 김선임 문화위원장께서 엄청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챙겼습니다. 예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세요?

○ 이사 김병량

사전에 설명은 받았는데, 오늘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이거는 책자를 좀 미리 봤으면 좋겠는데, 정작 이거는 안가져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보고 하려니까 좀. 신년도 사업계획과 예결산 하는 것은 좀 자료를 미리 줘야 하는데, 다음부터는 주면 좋겠고요, 아까 성남대표브랜드 축제는 재단에서 그동안 10년이상 성남에서 생활밀착형 예술, 생활예술, 사랑방문화클럽이 전국적으로는 벤치마킹 많이 오는 브랜드로 되어있는데, 지역별로 축제 돌아다니시느라 힘드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좀 엮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지역에서 따로하고 사랑방 따로 하고 하니까 지난번에 예를들면 사랑방축제 때 퍼레이드 굉장히 다른 지역에도 천안에도 굉장히 정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만 해도 약간 동원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에서 하는 것은 전혀 동원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서 동아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색다른 데 그런데 거기다가 지역내에 있는 기업, 혹은 동별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시민들이 내용도 충실해지고 또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아까 콘트롤타워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좀 줄었다고 하지만 다른 쪽에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거기 콘트롤타워에서 같이 날짜를 같이 한다거나 장소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겠습니다.

○ 이사장 은수미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문화재단에서 기획을 잘 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게임페스티벌 같은 것을 보고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게 5억이 들어요. 엄청 드는거예요. 보통 저희가 축제를 천만원 이정도 수준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컸던게 의료관광박람회 그게 16억 들었어요. 8억 국비, 8억 시비였어요. 그 다음 또 크게 게임페스티벌 5억이었는데, 의료관광박람회도 내년에 하게되면 이정도 규모면 안된다. 너무 기업에만 유리하고, 시민에게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했어요. 외국바이어들이 다 불러준 셈이어서. 제가 게임페스티벌 보고 굉장히 아쉬웠던게 이게 딱 건물 안에서 해버리니까 연계가 안되요. 이게 연계가 됐더라면, 코스튬이나 엔터테인먼트하고 같이 연계가 됐더라면 꽤 괜찮았을텐데, 거기다가 심지어 E스포츠도 도입을 해야하는게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서 그런것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제가 드론존을 MOU 맺게됐어요. 공군비행사단에서 ok 해주셔서 성남공항이 있어서 제한이 되는데, 드론기업이 58개가 들어와있거든요. 테스트 배드가 불가능했어요. 공군하고 협상을 했고, 공군에서 거의 확정이 끝나서 3곳에 드론존을 만들어요. 이런것과 연계를 한다든가 혹은 내년에 저희들 꿈은 대통령 모시고 하는건데, 국제자율주행 챌린지대회 같은게 있어요 그런 기획들이 요것과 문화를 연결을 하거나 탄전을 연결하거나 이러면 뭐가 되요. 의료관광박람회도 제가 보면서 아쉬웠던게 외국에서 종종 의료환자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사실 성남에서 관광을 하셔야 하는데, 이거가 연계가 되면 저희가 도움이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병원들이 되게 좋은거예요. 병원들은 바이어들과 그 현장에서 계약을 수십억씩 하셨더라고요. 이런것들도 있고 해서 저는 문화재단과 산업진흥원 그 다음에 시, 청소년재단 이렇게 연계를. 연계를 해가지고, 공유를 하고 축제도 공유하고 하다보면 하면서 기획을 하면, 들어가야할 돈 어차피 그것을 외부효과를 키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김병량이사님 말씀처럼 서로 지금까지 따로따로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을 엮자고 하는거거든요. 엮는 판을 저희들이 만들어 드릴 터이니 문화재단에서 그 위에서 잘 뛰놀아 주시면 아주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그런 기획들이 있어요. 중요 기획들을 점검을 해보고 임승민국장님 통해서 점검을 하시고, 결합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꽤 날 것 같아요. 자원은 굉장히 풍부하고, 사람들도 너무 좋은데 잘 안되요. 그러니 저도 잘 활용을 하시고, 만약 요구하시면 카카오 협상해서 카카오프렌즈 축제할 생각 있다니까요.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것도 잘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박명숙대표님께서 하시겠다는 것도 있어서 그걸 또 산업진흥원하고 연계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꽤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 이사 김대진

이사장님 동의 요청합니다. 우선 안건부터 해결해주시고, 기타 토의시간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 이사장 은수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86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고요,

○ 이사 김보연

아니요, 있습니다.

○ 이사장 은수미

말씀해주십시오.

○ 이사 김보연

2019년도 세입에 보면 정책사업비 안에 전시사업수입과 갤러리 808대관수입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예술국장 직무대행 김철주

전시사업 세입을 축소시킨 이유는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전시쪽에 대한 일부사업을 경기도와 같이 성남시민들에게 무료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세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 이사 김보연

그렇군요. 그럼 지금 무료대관이 반달갤러리가 무료대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08갤러리도 무료대관이 가능한겁니까?

○ 예술국장 직무대행 김철주

아니, 현실적으로 대관을 해보니까 808 대관세입을 목표가 좀 미달되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잡았습니다.

○ 이사 김보연

그러면은 미술은행 경비나 이런것도 세입안에 잡혀있습니까? 내년도

○ 예술국장 직무대행 김철주

네, 잡혀있습니다.

○ 이사 김보연

올해 미술은행 경비가 안나온걸로 알고있는데, 그렇습니까?

○ 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올해 미술은행 예산은 없습니다.

○ 이사 김보연

전년도 예산은 없었습니까?

○ 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없었습니다. 2년 연속 없습니다.

○ 이사 김보연

2년 연속 없었습니까?

○ 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구입 예산은 0이고, 배정받지 못했고, 다만 기존에 소장하고 있는 미술은행의 미술품을 관내에 대여하기 위한 기본경비 이 정도는 잡혀있습니다.

○ 이사 김보연

그러면 지금 미술은행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텐데, 미술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성남에서의 역할을 말씀해주세요.

○ 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성남의 미술은행은 성남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소지를 두고 계시는 작가분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매입을 해서 관내의 기관이나 일반 개인 가정에 대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 이사 김보연

그 예산이 나왔을 때는 얼마씩 됐습니까?

○ 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처음 시행했을 때 구입예산 1억 3천만원이었고, 그 다음 해가 1억, 그 다음 해가 7천만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 이사 김보연

점점 줄면서 예산이 없군요. 시장님께서서는 미술은행 알고계신가요?

○ 이사장 은수미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사 김보연

이재명시장님 전에 미술은행 전에 시에서 성남에 있는 화가들의 작품을 구입했는데, 이재명시장님께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면서 그 구입을 중단했다가 모라토리엄이 해제되면

서 다시 만들었는데, 그 때 저랑 같이 의논을 해서 미술은행으로 해서 이왕이면은 사서 그냥 두지 말고 대여를 하자고 해서 미술은행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애기를 들은거로는 예산이 없다고 하니, 아까 예산이 재정자립도 1위라고 했는데, 예산 자체는 뽐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시 재개를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 이사장 은수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저도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큐브 미술관이 소장품을 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남 미술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콜렉션이 소장이 되어있습니다. 큐브미술관은 문광부 미술관에 등록이 된 공공재로서 등록이 되어있고요, 현재 80여점의 작품이 소장이 되어있고, 성남미술은행은 지난 3년동안 58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장고의 공간이 지금 말씀 드린 작품과 시에 서 위탁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작품을 포함하면 포화상태입니다. 수장고의 구성이 조각이라든가 입체작품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평면 회화, 판화, 사진 중심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사업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것보다는 더 이상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입을 한 작품을 가지고도 충분히 관내의 복지기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이 라든가 개인과정이라든가 기업에 선순환 구조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수장고 공간이 확보가 되거나 또 미술은행에 대한 인력배치라든가 종합적인 고려가 됐을 때에는 추가로 가동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 이사 김보연

잘돌아간다는 것은 138점 전체를 다 잘 대여하고 있다는

○ 전시기획부장 박천남

58점입니다. 미술관 소장품은 대여못합니다. 임대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고 공공재입니다. 58점 전체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 이사 김보연

이것은 자체 내의 문제인데 3년동안 봐왔는데, 성남의 미술협회는 인원도 제일 많고 큼니다. 가장 활발하고 움직이고 있는 단체입니다. 성남의 미술인들이 한 이야기, 많은 불만중에 특히 그전에 미술은행에서 작품구할 때 3년간 구했는데, 어떤 특정인은 3년 내내 작품을 구했다든가 또 3년동안 2번씩 작품을 낸 사람도 여러명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미술은행건도 이재명시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박천남부장

오실적에 예총회장님도 계시고 다같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구입한 작품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구입하지 않기로 그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다 무시된 것 하고, 또 하나는 그런 공적인 것을 구할 때 물론 전시기획부의 역량도 믿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서 지금 알고 있기에는 전부 젊은 청년 작가들에게만 우대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중년층 저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년층들까지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또 지역에 같이 걸음을 갈 수 있는 그런 작가들하고 의논을 하고 또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시기획부장 박천남

미술은행은 대여가 가능한 작품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대여가 되는거거든요, 그리고 미술은행의 운영규정을 보면은 횟수의 제한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모를 따우면 경쟁률이 2:1이 안됩니다. 지원을 많이 안하십니다. 그리고 이런건 허수가 있는데, 작품의 심사를 작가를 배제한 평론가라든가 기획자들이 엄격하게 합니다. 외부인사입니다. 저희 내부인사는 개입하지 않습니다만 그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일종의 자기검열을 통해서 작품에 대해서 상품성이라고 표현하면 외람되지만 미술은행에 맞는 작가들의 작품이 공모에 출품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고 또 소장하고 싶지만, 그러한 이유와 또 대여가 잘되어야 하는 작품을 컬렉션을 해야하는 그런저런 이유로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해주시는거고요, 아까 여러명이라고 하셨는데, 10분 정도작가의 작품이 2점 정도 구입이 되어있고요, 한00씨 여성작가의 작품이 3점이 구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1점씩 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이나 전국 미술은행의 컬렉션이 2,500여점이 한 번도 대여가 안되고 작품이 수장고에 잠들어 있습니다. 국감에서 지적을 받아 실사까지 들어간적이 있습니다. 저희 컬렉션 같은 경우는 수는 많지 않지만 사실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로서의 컬렉션보다도 퀄리티가 좋습니다. 대여 요청이 꾸준히 이어지는 편이고, 지금도 정자동의 국제어학원(교육원)하고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 16점, 18점 그렇게 잘 소개가 되고 있는 인기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의외로. 그래서 소장이되고자 또 소개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서류를 내주시면 기회가 많이 갈텐데 의외로 말씀처럼 이런 지적은 하시는데, 실제로 서류를 제안해주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 이사 김보연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대표님께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 외부인들이 오면은 사실 성남의 미술인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곳은 갤러리808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씨어터 쪽에 2개가 있었는데, 폐쇄가 되고 새로 생긴건 하나도 없고, 오로지 갤러리 808에만 대관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외부인들이 오면 갤러리808을 찾지를 못합니다. 혹시 여기 이 사님들 갤러리 808 어디있는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은요? 외부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심지어 갤러리 808을 어떻게 찾아오면 좋습니

까 라고 작가들이 전화를 받으면 바람소리 앞에 있어요. 바람소리 찾아오세요 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문패가 없어요. 오로지 그 갤러리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건 재단측에서 바깥에서 알수 있게 사인보드를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간판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갤러리808 같은 경우에 성남의 미술인이 제일 많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신청을 해도 다 수요충족이 안되죠,

○ 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저희가 다음에는 김보연이사님을 심사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고민할 정도로 많은 분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해십니다. 자료를 지금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 이사 김보연

심사위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808갤러리를 얻지를 못한다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전시기획부장 이야기와 제가 들은 성남의 화가들의 이야기에는 괴리감이 있다는 것입니까

○ 전시기획부장 박천남

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사 김보연

네, 그런 것 같아요.

○ 이사장 은수미

네, 그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에서 감사를 합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번에도 한번 문화재단 다 감사를 했어요. 저도 이제 성남에 4년을 있으며, 이재명 전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재로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들었던 이야기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게 감사를 해요. 그리고 다 지적이 되고요, 아마 지적들을 받으셨을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미안할 정도로 엄격하게 감사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좀 믿어 주셨으면 이사님들부터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사 김보연

감사는 하시는데, 감사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사장 은수미

그래서 그런것들 정상적인 감사의 범위 내에 예를들어 뭘 지원을 했을 때 공모를 정확하게 했는지,

절차를 밟았는지, 외부심사위원들이 몇 명이었는지 심지어 여성들이 포함되었는지도 감사의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절차나 이런건 기본적으로 밟지 않았나하는데, 아마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게 성남에 미술관이 없다는 사실에도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그런 하드웨어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의자가 워낙 작다보니까. 또 저는 다른 말도 들어요. 제가 듣는 여러 가지의 말들이 있거든요. 전혀 반대의견도 또 들어와요. 성남은 기존 미술가들만 우대하고, 죄송합니다. 청년이나 이런 신진에 대해서는 문이 막혀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 이사 김보연

전혀 아닙니다.

○ 이사장 은수미

그러니까. 그건 또 전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시장이에서 양쪽의 민원을 다 듣는다고 생각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실제적인 하자가 없다면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그런것 까지 더 꼼꼼하게 감사를 할 터이니

○ 이사 김보연

하자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 이사 김대진

안건 먼저 처리합시다.

○ 이사장 은수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이사 김대진

없습니다.

○ 이사장 은수미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386호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장 三 打)

○ 이사장 은수미

토론이 많은 건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많이 들어야 하니까요. 다음 세 번째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 **司會 경영국장 직무대행 이성표**

의안번호 제387호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산 명시이월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4쪽입니다. 저희가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예산이 시비30억, 도비30억이 확보 되었는데, 내년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국가나 시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겠다는 명시이월건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사장 은수미**

예,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理事 있음]

○ **이사장 은수미**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387호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산 명시이월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장 三 打)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司會 경영국장 직무대행 이성표**

오늘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선임직 임원 선임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7쪽입니다. 제7대 성남문화재단 선임직 임원의 임기가 2018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성남문화재단 정관 제17조,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대 선임직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정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대표이사와 당연직을 제외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선임(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9쪽입니다. 이사회운영규정 제4조 및 동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이사장님께 권한을 위임하는 가·부를 결정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대부터 7대까지 총 일곱번의 이사 및 감사 선임 방법은 권한위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사장 은수미**

의견있으신 분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김대진**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0조 권한의 위임사항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4조 권한을 이사장님께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사장님께 위임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理事 있음]

○ **이사장 은수미**

그럼 저희가 공모같은 절차를 갖고 하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388호 선임직 임원 선임안은 권한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장 三 打)

○ **이사장 은수미**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성남문화재단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司會 경영국장 직무대행 이성표**

이사회 폐회가 됐고요,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서 오페라하우스 지하 바람소리에서 석식을 하시면서 더 많은 대화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